



25

섬유가공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생불량성빈혈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기계운전공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동○○(남, 49)은 1998년 9월 섬유가공공장인 K사에 입사하여 기계운전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9.4.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하여 치료 중이다.

2 작업환경

동○○은 섬유원단에 털(나이론,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등 섬유를 잘게 찢어 놓은 것)을 붙이는 사업장에서 원단에 털을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동○○은 작업 중 화학약품인 바인더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K사 입사 전에는 4년 간 일회용 라이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플라스틱을 분쇄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이터에 가스를 주입하는 업무는 하지 않았다. K사에서 사용하는 바인더는 아크릴 에스테르가 주성분인 접착제이었다. 기타 수성 안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라이터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지는 ABS 수지이었으며 가스는 부탄가스를 주입하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동○○은 K사에 입사전 라이터 공장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K사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K사 입사 6개월 경이 되는 1999.3.부터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으며 4월에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을 받았



고 골수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담배는 20세부터 하루 1갑씩 약 20년을 피다가 8년 전에 금연을 하였다. 발병 초기에는 요령을 몰라 산재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4 결 론

동○○의 재생불량성빈혈은

작업 중 노출된 물질 중에서 조혈기장해를 일으킬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